지역 소식통

부안 계화간척지, 유채경관축제

부안군 계화간척지 들녘을 노랗게 물들여 유채꽃이 만발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5일 계화면사회단체협의회와 유채경관단지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풍년기원 계화간척지 유채경관축제가 부안군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풍년기원 제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태풍 등 재해와 병충해 피해 없이 올 가을에는 대 풍년을 이뤄 풍성하고 넉넉한 계화들녘이 되기를 기원했다.

유채꽃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며 악단공연이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고 준비한 콩 두부, 해물 부침개 등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과교 입체교 보수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정읍시가 노후된 과교 입체교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과교 입체교는 삼산동 국도 1호선 상의 철도 횡단 교량으로 지난 1984년 설치됐다. 33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서 시급한 보수·보강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한 보수와 함께 21억원을 투입, 보다 정밀한 보수·보강을 실시키로 하고 시비 부족분 10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왔다.

시는 "시비에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더해 교면 포장과 받침 장치 교체, 상부구조 보강 등 긴급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아산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우수암거)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아산면 대아초 앞 도로는 시간당 강우량 20mm이상만 되어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왔던 곳으로 학생과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아산면 소재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행복 민원서비스 제공

고창군, 민원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행복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은 △군민생활속 정부 3.0 실현 △군민 중심 민원환경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4대 추진과제에 14개의 세부사업들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군은 세무서, 군청(인·허가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미용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을 관할 주소지 외에도 전국 시·군·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를 비롯해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신청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연처리 없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해 처리기한이 되기 전 예고와 독촉을 통해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로 챙기고 군민이 행정절차에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 1회 민원처리실태 확인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민원후견인제·민원조정위원회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한다.

이밖에도 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도움서비스 '명예 민원실장'과 친절 안내도우미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적극 실시하면서 친절하고 정감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군민 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1종 미술관 등록 기념전

내달 2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모·자녀 함께하는 오감 체험형 기획전 마련

정읍시립미술관이 1종 미술관 등록 기념 기획 전시전을 갖는다.

시립미술관은 내달 2일 오후 2시 개막식을 갖고 6월 11일(매주 월요일 휴관)까지 전시를 이어가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종 미술관으로 등록에 따라 정읍시립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 것을 기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기획전으로 마련했다"며 "현미술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국내·외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22명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 중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 동심과 지금 자라나는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평면과 입체작품, 인터렉티브 아트 등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감이 약해져 가고 있는 요즘, 이번 전시회가 가족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가족 간 유대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한바퀴', 체험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울타리'와 '옛날 추억, 뽑기 한판!'도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임산업 활성화 소통 간담회

부안군은 임산업 전반에 대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26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권재민 부군수, 산림조합중앙회 정규순 본부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 2017년도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부안군 임산물 생산자의 실질적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추진 중인 임산업 관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관내 임업 인의 소득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5건 13억 원이 선정된 성과를 올린 만큼 앞으로도 산림소득분야 국가예산 확보 및 임업후계자 확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안오복마실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여의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공개모집

부안군은 휴가철을 앞두고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등 관내 5개소 해수욕장 개장시 관광객의 안전과 인명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군은 54명을 채용해 각 해수욕장별로 배치해 각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 안전관리요원이 근무지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게 하는 등 책임감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요원 지원자격은 수상안전교육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또는 수영하기가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응시원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15일(46일)까지로 각 해수욕장별로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지원자에게 안전관리요원 근무복을 지급하고 관외 거주자는 필요시 숙소 제공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자격수당(일 1만 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군 심문식 해양수산과장은 "해수욕장 운영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봄철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나서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정읍시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농기를 맞아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봄철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손 돕기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시는 농생명활력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지원 창구에서는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일반시민과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연계해줌으로써 일손 돕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독거농가와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와 손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채소 재배농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농촌 일손돕기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참여 희망자는 농생명활력과(☎063.539-6231~3) 희망지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참여 일자와장소, 인원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고장의 인물 녹두장군 전봉준의 위국단심을 선양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탐방교육은 지난 3월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신림초, 아산초, 공음초, 상하중, 고창북고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들은 27일 신림초 학생과 교직원 40여명, 다음 달 25일 상하중 학생과 교직원 60여명, 다음 달 26일 고창북고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 6월 8일 아산초 30여명, 6월 16일 공음초 학생과 교직원 30여명 을 대상으로 탐방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탐방은 선운산 도솔암 미륵불 배꼽 속에 비결이 들어있어 그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 새 세상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선운산 마애불, 전봉준 장군 생가터,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탐방 일정으로 진행되며 동학농민혁명 퀴즈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